

저작권은 <http://www.hangeulstudy.com> 다목적 글소리 샘 장덕진에게 있음

5. 논술 기초 그리기

논설문과 논술의 차이

같은 점

- ♣ 쓰기의 틀과 쓰는 방법이 같다.
- ♣ 출제자(시험을 낸 이)의 지시, 의도에 따라 쓴다.

다른 점

- ♣ 논설문 : ① 주제를 정해 놓고 쓴다.
- ♣ 논술 : ① 제시된 본문을 읽고, 주제를 찾아 쓴다.
② 동화, 위인전 등 책을 읽고 주제를 찾아 쓴다.
- ♣ 따라서 논술은 중심 내용 파악과 주제 찾기가 중요하다.
- ♣ 출제자(시험을 낸 이)의 지시 의도에 따라 쓴다.
예를 들어 ‘심청전’을 읽고 주제가 ‘효도를 하자’라고 한다면 출제자는 다음과 같이 지시할 수 있다.
- ☞ 요즘 사회의 입장에서 ‘심청은 효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200자 원고지 10장 이내로 논술하시오.

한글을 사랑하자

(‘세종대왕’을 읽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하면 우리 고유의 음식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김치와 애국가 그리고 과학적인 한글이 생각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글은 외국인에게도 알기 쉬우며, 한글의 훌륭한 독창성 때문에 관심이 가장 많다고 한다. 우리는 한글의 발전을 위해 힘쓰신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여러 명의 위인 중 세종대왕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운 한문을 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우리 나라의 백성만을 위해 특별히 한글을 창조하신 글이다.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 특별히 한글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공지를 갖기는커녕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좋은 한글을 놓아두고, 한글에 관심이 없는 이유와 한글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자.

먼저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해 보겠다.

하나는 한글의 멋진 독창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 한글은 오성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오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오성은 다섯 소리를 의미한다. 한글은 외국사람들도 배우기 쉽고, 알기 쉽다고 인정 할 만큼 쉽게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국민은 이런 한글의 독창성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쉬운 한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들은 한글

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유식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우쭐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일상어 속에 외래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 외래어를 많이 쓰며 살아간다. 예를 들면 비스킷, 쇼핑, 버스, 팩스, 원피스 등 수없이 많은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다. 독창성 있는 우리의 말에 수많은 외래어가 섞여 있으니, 외래어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글의 멋진 독창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한글은 오성으로 되어 있다. 그 속에는 어금닛소리,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가 있다. 이것을 보면 한글이 그냥 무심코 창조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성은 닿소리를 의미하며, 홑소리는 3재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한글은 이렇게 독창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세종대왕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쉬운 글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의 독창성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람들이 쓰는 외래어를 한글로 고쳐 쓰자. 북한에는 주스를 과일단물, 원피스를 달린 옷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며칠 전 TV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았다. 탈북자는 외래어 섞인 남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당황하였다. 그래서 탈북자는 남한에 오면 외래어 섞인 한글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거나, 한글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한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외래어를 섞어 쓰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이 점점 죽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한글의 독창성에 대하여 잘 알고, 외래어를 한글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 날 때, 세계 속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강한 빛을 내며 훌륭한 나라로 알려질 것이다. 우리 모두 긍지를 갖고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 ☞ ‘심청전’을 읽고 주제(중심 내용)가 ‘심청이는 효녀다’라고 하면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논설문을 써 보시오.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다

(‘심청전’을 읽고)

‘심청이는 효녀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다. 누구나 ‘심청전’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심청이는 효를 꼭 그런 식으로만 해야 했을까? 옛날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읽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심청이의 효가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알아보고, 진정

한 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심청이의 효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그 첫째, 심청이는 효를 인당수에 빠져 죽는 방법으로 해야만 했을까? 심청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면 심봉사 어른은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란 말인가? 그 뒷일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가? 여기서 심청이의 경솔함과 깊이 않은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공양미 삼백 석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효인가? 심봉사는 앞을 못 보는 어려움을 참아가며 동냥젓으로 심청이를 키웠는데, 고작 공양미 삼백 석과 금쪽 같이 귀한 생명을 버리다니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심청이는 자기 자신만 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라, 이런 힘든 생활에 지쳐서 차라리 죽음을 택했는지 모르는 일이다. 미처 뒷일을 생각하지 못한 심청이의 경솔한 행동으로 미루어 충분한 예측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진정한 효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곁에서 아버지를 보살피 드려야 한다. 공양미 삼백 석으로 눈을 뜨게 된다지만, 그렇게 될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심청이가 없는 심봉사의 괴로움은 생각만 해도 슬프다. 딸을 잃은 괴로움, 볼 수 없는 괴로움,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 없는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눈도 뜨기 전에 심봉사는 죽어 가게 될 것이다.

둘째, 생명을 중히 여겨야 한다.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기에 더욱 목숨은 귀중하다. 옛말에 부모님 앞에서 먼저 죽는 것은 가장

큰 불효라고 했다. 이것은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보다 효를 위한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라면 이렇게 정성껏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것이다.

지금까지 심청이의 효에서 잘못된 점과 진정한 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진정한 효는 무엇보다 마음이다.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것 보다 어렵더라도 마음 편안히 심청이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당수에 몸을 던져 귀중한 생명을 효와 바꿀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정성껏 보살펴 드리며 마음 편하게 해 드려야 한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일까? 생각해 보고 심청이처럼 목숨을 던지는 경솔한 행동으로 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효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효로써 이 아름다운 사회를 꽃피우자.

☞ ‘홍부전’을 읽고 ‘홍부보다 놀부가 더 현명하고 똑똑하다.’라는 주제로 논설문을 써 보시오. (모범 답안은 생략함)

놀부가 더 현명하고 똑똑하다
